

광주 일상회복 지원금 17일부터 지급

시민·외국인 146만명 대상 1인당 10만원씩 지급 침체한 지역상권 단비될 듯

광주시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현재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체류자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다.

가령 명부 작성 기준 시점인 12월 1일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날까지 주민등록을 뒀다면 이튿날인 2일에 전출했다더라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에 맞는 시민은 146만8234명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총 1468억 234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7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계좌 입금,

17일에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포인트 충전과 선불형 상생 카드 현장(행정복지센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신청 첫 주인 오는 17~21일에는 혼잡을 예상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1~2일 후에 카드사로부터 포인트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현장에서 광주 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보고회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시민안전실장과 분청 추진단 6개 부서, 5개 자치구 총괄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혼잡 방지 대책 등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일상회복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운영총괄반, 시스템운영반, 행정지원반, 모니터링반 등 4개 반 15개 부서로 구

성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추진단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방식별 세부 운영지침 마련 ▲15개 은행·카드사와의 업무협약 추진 ▲전담 콜센터 설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구축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계좌입금을 위한 지급정보 구축 ▲외국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지원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도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보조인력 채용·배치를 비롯한 97개 행정복지센터별 전담창구 설치, 통·반장을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일상회복이 잠시 멈추면서 많은 시민이 힘들고 고단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온기가 있는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스티커 붙여 야생조류 건축물 충돌 막는다

광주시, 공공건축물 대상

광주시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조류 피해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광역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조류 충돌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건축물을 선점할 계획이다. 사업은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 충돌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조류충돌 방지 건축물(방음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산구 쌍암힐스테이트리버파크에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조류충돌 피해는 생활 속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조류충돌 피해 저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음식점에 마스크 보관용품 제공

1회용 봉투·걸이 등 13만5000개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음식점에서 식사 중 위생적으로 보관할 마스크 보관용품을 제작해 배부했다. 마스크 보관용품은 식사 중 마스크를 식탁 위에 올려두면 관리의 불편함과 위생 안전에 대한 이용자의 걱정이 있어 마스크 1회용 봉투 13만 개와 식탁 걸이용 5000개를 시범 제작했다.

1회용 마스크 봉투를 제작하면서 앞뒷면에 '방역수칙 준수! 안전한 식사!' 문구를 넣어 방역수칙

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효과와 식당 이용자의 편리함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음식점에서 1회용 마스크 봉투와 걸이를 사용한 이용자와 영업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득이하게 식당에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식사를 하는 경우 위생적인 1회용 마스크 보관봉투와 마스크 걸이를 편리하게 이용하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요양원 찾은 김영록지사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가 5일 오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곡성군 석곡면 바울요양원을 방문, 시설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성이 담긴 따뜻한 위문품을 전달한 뒤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농기원, '농업인 실용교육' 스타트

21개 시군 농업인 2만여명 대상

전남도농업기술원은 5일 "다음 달 19일까지 21개 시군 205개소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례부터 시작된 농업인 실용교육은 21개 시군에서 농업인 2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용교육은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친환경 등 농업인 수요에 맞춰 품목별 핵

심적인 재배기술과 신작목 등에 대해 교육한다.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농정 이슈와 과수화상병 방제, 미세먼지 대책,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안내 등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분야별 교육시간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1일 4시간 이내로 편성하고, 교육 기간 다루지 못한 기술과 심화교육을 위해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 함께 방역 패스 소지자를 대상으로 49명 이하 소규모 집합 교육을 진행한다. 문의 061-330-2725.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장 모집

인건비 손실분 2개월간 66만원 지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장 장려금'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장 장려금 지원 사업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일상생활균형 신규 사업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직장맘·대디의 골든타인인 초등 1학년 입학기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초등1학년 입학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일가정양립과 임금 손실 없는 2개월간 출근시간 연장제도를 도입해 가족친화 경영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장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장으로 광주시 관내 법인 및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며, 2022년도 3월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있는 직원의 오전 10시 출근을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기업이면 된다.

광주시는 학부모 직원이 2개월간 오전 10시 출근시간을 준수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월 33만원씩 2개월간 총 66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한 부모 직장맘(대디)은 최대 3개월간 총 9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채용자 등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맞벌이도 별도 사업장에 근무하면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 순차 지원이 가능하다.

조손가정은 조부모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개월 또는 간격을 두고 총 2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회사사정 상 오전근무가 필수일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해 5시 조기퇴근을 사용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별 특수 업종일 경우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1)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자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수량·수질 관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비가 올 때 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 및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하수도법 개정으로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통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일

정량의 하수를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공수역으로 배출했다. 이처럼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수량과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고,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의 운영·관리자는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질을 선정해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 승계 절차도 규정해 반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정 시	정 원 외
인문사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예능	음 악 학 부	12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70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우치원고시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지대로 36